

목포 시민 건강지수 최하위 '이유 있었네'

보건 인력·예산 부족...지역 의사 1인당 주민 492명 달해 심뇌혈관 질환 사망 많고 비만을 증가...체계적 관리 필요

목포시 시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목포 건설'을 위해서는 해마다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 건강지수'에 따르면 고령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남의 타지자체는 대체적으로 상위권이었으나 유독 목포시(0.469점)만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 시는 보건소의 보건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건소(소소 포함) 인력은 정규직 64명, 공무원 62명, 기간제 4명, 공중보건의사 5명 등 총 135명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정원이 5명이나 부족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예산도 2016년 들어서면서부터 처음으로 목포시 본예산(결산 기준) 대비 2%대 아래로 주저앉아 1.9%에 그쳤다.

또 관내 의료기관은 283개소(종합병원 5개, 병원 33개, 의원 245개)에 7461병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은 총 694명(의사 476명, 치과의사 115명, 한의사 103명)으로 의사 1인당 주민 수는 492명으로 조사됐다.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에 따르면 목포

시 의료수급권자 비율은 4.95%로, 전남 4.26%에 비해 높고 전국 2.8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사업 실시가 시급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목포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표준화 사망율은 2016년 기준 426.4로 전남도 366.1, 전국 337.2에 비해 높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율 27.1%로 전남에 비해 낮으나 전국(25.6%)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망 원인별로는 암이 1위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심장질환(2위), 뇌혈관질환(3위), 허혈성심장질환(5위), 당뇨병(7위) 등 상위 4개 순위를 차지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비만율도 2012년 22.3%에서 2015년 30.8%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역 주민 1858명(남성 874명, 여성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부문' 의견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건강진단-질병관리-건강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격정되는 질환은 암, 치매, 고혈압·뇌졸중 순으로 집계됐고 건강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고혈압·당뇨병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목포시민들의 건강지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보강과 예산 확대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보건소 민원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이에 인규유입을 위한 실효성 높은 시책 추진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자살 사망율, 비만을,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율,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칫솔질 실천율, 치매등록관리, 암 검진 수진율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견해다.

이와 관련 목포시 보건소는 다양하고 개

별적인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한 경로인지장애와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예방수칙을 활용한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등록관리(보건서비스수혜율)를 5%이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 확대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해수청 항만청소선 '청해2호' 취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규표)은 지난 21일 목포 남항에서 항만청소선 '청해2호'의 취항식(사진)을 갖고, 항내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나선다.

목포항에는 기존에 청항선 1척(64t, 선령 22년)을 운항하고 있었으나 노후되고 항만 사용이 늘어 청항선 추가 도입이 시급했다. 새롭게 건조된 청해2호의 취항함에 따라 목포항은 총 2척의 청항선이 운항하게 됐다.

이번 건조된 청해2호는 총길이 82m로 길이가 24m, 너비가 9.4m이며 연해구

역까지 항해가 가능하고 최대속력은 13노트(시속 24km/h)이다. 또 해상 부유쓰레기 수거 장치, 크레인, 오일펜스, 유회수기 등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으로 해상 항행 장애물을 제거하고 유류오염사고 시 신속한 방제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청항선 위탁운영 기관인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신조 청항선을 통해 목포항과 인근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농협,농·축협 종합평가 전국 3위 영예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이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농·축협 종합평가 결과, 전국 3위를 달성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농협에 따르면 종합평가영예는 전국 1122개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의 경제사업과 보험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 크게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가장 권위 있고 종합적인 평가다.

박정수 목포농협조합장은 "한마디로

종합평가영예는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봉사기능 극대화는 물론 농·축협 경영내실화를 위한 성장성과 경영관리, 농업인 실익사업이 주요 평가항목"이라며 "그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은 1년 동안 목포농협이 내실 있는 경영관리와 함께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반증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월 열리는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시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전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19개 단체 참여

전남도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목포시에서는 총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목포시 자료에 따르면 '씨앗' 단계에는 관동, 뜨개질로 마을을 엮다 등 15개가 참여했고, '새싹' 단계에는 연산 꽃 마당, 반딧불 변화봉사단, 상동3 행복마을 만들기 등 3개 단체, '열매' 단계는 인스빌 행복공동체 1곳 등 모두 19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차 서류심사와 함께 2차 주민참여 심사가 진행됐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28일 발표됐다.

선정된 단체에는 단계별로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목포시 자치행정과는 이들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의 예산을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3·1절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오세요

목포시, 100주년 맞아 2일까지 전시·공연·체험 등 행사 다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년 후 후손들이 수탈 역사의 심장부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 공간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당시 역사현장을 투어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뜻 깊은 행사가 펼쳐진다.

목포시는 25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현 근대역사관 2관) 일원에서 '기억하라 3.1, 영원하라 목포!' 라는 주제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전시와 공연, 투어,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1897년 개항 당시에서 목포 만세운동까지 목포의 다양한 모습과 독립을 향한 목포사람들의 열망이 담긴 영상물이 제작 상영되고, 근대역사관 2관 외벽에는 광복 당시 목포역 광장에 설치됐던 조형물을 복원

시킨 '광복 독립만세 포토 존'이 설치된다.

또 포토 존 주변에서 석고마임 공연, 서예 거필 퍼포먼스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된다.

풍물패와 극단, 관람객이 함께하는 3·1만세 재현 상황극, 만세운동 종이인형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근대역사관 주변 거리에서는 파랑새행복나눔 패밀리와 국도1호선 밴드 등이 참여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일 오후 1시에는 목포지역 독립만세운동 현장을 답사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목포 독립역사의 길 걷기 투어'가 진행된다.

투어는 4·8 만세운동이 펼쳐진 정명여고를 출발해 양동교회, 옛 청년회관, 옛 일본



오는 3월1일과 2일 목포 근대역사관 2관에 설치된 '광복 독립만세 포토 존' 주변에서 펼쳐질 석고마임 공연 장면.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역사관, 옛 동척 건물 등을 돌아오는 코스다.

이와 함께 시민들 얼굴을 활용한 대형 태극기 제작, 태극기 이름쓰기, 소녀상 만

세행진 퍼포먼스 등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산업협회, 한국에너지산업협회, 한국에너지산업협회) -

에너지신산업 활성과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문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서해에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능함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